

코로나 19 이후 기독교대학 : 백석대학교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중심으로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

들어가는 글

2020년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2021년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치(김상배, 2020), 경제(홍태희, 2020), 사회(유선우, 2020), 문화(오수경, 2020)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영역에 있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학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신선애 등, 2020),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한승우와 김보영, 2020; 이용상, 2020; 이동주와 김미숙, 2020), 다양한 전공별 사례 연구(안지은과 박지현, 2020; 김동효, 2020; 권영문과 김승환, 202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사회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서 기독교대학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시행한 결과들은 개신교의 이미지 급락¹⁾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은 기독교대학 지원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기독교대학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산하 코로나 19 설문조사 TF팀과 기독교 8개 언론사가 함께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60.6%는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꼽았고, ‘사회적 약자 구제·봉사’ 49.6%, ‘인권, 약자 보호 등 사회운동’ 22.5% 순이었다.²⁾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개신교회가 사회적 약자 및 도덕의 실천을 강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백석학원은 이미 오래전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을 강조하여왔다. 그 핵심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이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기초 위에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1th_200828_Full_Report.pdf (2020.8.28)

2)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2530 (2020.9.4)

백석학원 산하의 대학들도 설립정신 아래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백석대학의 ‘백석정신아카데미’나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학원선교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각 기독교대학들에 확산되어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야 할 것(정종훈, 2014: 90)”이라고 언급될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기독교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강한 의지를 선언하고, 다른 기독교대학에 없는 정체성 유지를 위한 부서를 두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 있게 기독교대학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백석학원은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생명신학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이 백석학원의 교육, 행정, 경영에 뿌리 내린다면 기독교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개혁주의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장종현, 2014: 7).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미래는 외부 기간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 세속적 방식을 쫓아가는 것에 있지 않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하며 그 답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존 파이퍼, 2020: 91).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며 백석학원은 기독교대학으로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백석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행정체계 등을 재정렬해야 한다.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장종현 박사가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개혁주의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제안하였듯이, 백석학원이 살기 위해서는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기독교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독교대학의 대처방안을 백석학원과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석학원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기독교대학 정체성 위기의 원인을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와 종교적 가치의 상실이라고 제시한 연구가 있다(허도화, 2015: 85-93).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종교와 무관한 것으로 또는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기독교대학의 분명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갖는 것을 기독교대학 정체성 위기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허도화, 2015: 85-89). 백석학원의 경우에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체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백석정신아카데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백석학원은 정체성에 대하여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학자원의 감소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대학평가 등의 이유로 기독교대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허도화가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가치 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백석학원이 기독교적 가치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에 백석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와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의 훼손 상황을 살펴보고,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백석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

백석학원이 갖추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는 백석학원의 설립취지와 백석인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장종현, 2014, 13).

백석인의 지표는 “백석인은 기독교적인 삶과 신학과 교육목표를 아는 사람(장종현, 2014: 15).”임을 밝히고 있다. 백석학원의 설립취지는 백석학원이 세상의 대학과 똑같이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영적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는 것만이 백석학원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백석학원은 “성경이 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백석공동체에 속한 백석인은 백석인의 지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기독교적인 삶’을 아는 사람이다. 백석공동체의 교수와 직원은 교육과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답’임을 알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1) 백석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기독교적 가치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은 백석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독교적 가치의 근본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백석학원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백석학원이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백석공동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학원이 “성경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석공동체는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과 행정을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학의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 학과 개편 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입학자원의

충원과 각종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의 생존을 염려하며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이라고 기독교 정체성만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독교대학 안에서도 먼저 대학이 살아남아야 기독교대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먼저 대학으로 살아남고 나중에 기독교대학을 하겠다는 것은 기독교대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명문 기독교대학들이 세속화의 길을 걸어 명목상의 기독교대학으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지나친 염려는 기독교대학을 병들게 한다. 위기를 강조하며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은 설립자만의 것이 아니라, 백석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 두려워하며 ‘세상의 평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외치고, “성경이 답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행정이 백석학원의 설립정신과는 관련 없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세속화는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구성원들을 좌절하게 하여 돌아서게 하거나, 적절히 타협하며 연약한 신앙인의 삶을 살거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려는 백석학원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러한 영적 생명력의 손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회복할 없는 손실이다. 이러한 손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각종 수치(數値)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수치(羞恥)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 특히 주요 보직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대학을 경영하고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이 ‘나 중심’ 또는 ‘세상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행정에는 사랑과 존중이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더라도 백석공동체에 소속된 동료들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이다. 백석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함께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백석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기독교적 가치는 ‘사랑’이다.

백석공동체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16).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기독교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성경을 통해 알고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혹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합니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백석공동체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를 앵무새처럼 말하게 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백석공동체의 인사말이 “사랑합니다.”가 되려면 먼저 서로 간에 사랑을 깨닫고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백석공동체 안에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흐를 수 있는 것이다.

백석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백석학원의 사랑의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한다. 보직자와 행정부서에서 먼저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낮은 자와 약자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자이다. 그런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보직자와 부서장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를 훼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받는 소명인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대학의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이 많이 훼손되었다. 사랑한다면 행하여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부서에서 각종 평가를 앞두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 마이너스 점수라는 패널티를 주고, 메일을 통해 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실명공개를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행정방식으로 교수와 직원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대학평가를 앞두고 각종 평가 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료들의 섬김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대학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대학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설립정신에 반(反)하는 것이다. 각종 대학평가는 더욱 건강한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대학평가가 기독교대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되고 기독교적 가치가 사라진 대학은 더 이상 기독교대학이 아니다.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각 부서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강압이나 창피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을 담아내어야 한다.

3) 백석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 기독교적 가치는 ‘존중’이다.

우리가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존중해야 할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교수와 직원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인격체로 백석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교직원들이 기본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핑계로 대다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을 하는 백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는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나 세속적 이익을 보려는 발상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모르는 자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석학원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요8:32)”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깨달은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 장종현 박사가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외치는 이유는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붙여넣는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백석학원의 리더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달은 자답게 백석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치들을 없애야 한다.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강조하되 실제적으로 적용되지도 않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펼쳐버려야 한다.

2. 백석학원의 훼손된 가치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혁주의생명신학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한국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영적 생명력을 잃은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한국의 종교개혁운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선포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과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는 백석학원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에게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한국판 종교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지만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는 백석학원에 변화의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도리어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하

나눔께서 우리대학에 참으로 귀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시고 이를 실천하도록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주셨는데 왜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

백석학원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해 영적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백석학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경말씀 읽기와 기도생활을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종교적 규율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하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백석학원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생활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대학으로 힘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할 뿐, 실제 삶에 있어서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대학운영과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백석학원의 현재 상황을 관찰하여 진단명을 내린다면 실천적 무신론증후군(practical atheist syndrom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겉길로 빠져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롬3:11-12). 백석학원의 현실을 볼 때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장종현 박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해 외치는 것은 학문으로 신학을 하여 무신론자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을 꾸짖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영적생명력이 없는 신앙인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증후군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백석공동체가 실천적 무신론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며,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석학원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귀한 치료제를 주셨다. 하지만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치료제는 성경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으로 백석학원을 회복해야 한다. 치료는 조기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너무 늦어진다면 온갖 노력이 소용없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3.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통한 백석학원의 회복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외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실천운동이 1인칭의 신앙고백이나 개인적 회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인칭의 관점을 넘어 ‘우리’라는 3인칭의 관점으로 공동체의 공적인 영역에 확대되어야 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인 “성경이 답이다!”라는 외침과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1인칭의 신앙고백을 넘어 백석공동체의 교육과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또 하나의 학문으로써의 신학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이 백석학원의 교육과 행정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신앙운동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앙운동은 “오직 성경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주장(장종현, 2018: 21)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백석학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의 실천사례로 신입생들에게 성경책 배부, 성경말씀 묵상을 위한 큐티집 제공, 성경중심의 신학전공 커리큘럼 개발, ‘성경 읽기와 필사’ 과목 개설,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세상 읽기 소책자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장종현, 2018, 33-35).

백석학원이 신앙운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과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신입생들에게 배부된 많은 성경책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다양한 책자들이 읽혀지지 않고 있다. 백석학원의 신앙운동은 성경책을 배부하고 다양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귀한 사역과 함께 실제 성경을 읽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실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백석학원이 진행한 신앙운동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안을 한다.

첫째, 신입생들에게 성경책 배부와 함께 멘토링 수업과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책을 읽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실천원에서는 교목실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한 성경읽기의 확산을 위한 계획하여 실천 중에 있다. 성경책의 배부와 함께 멘토링시간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성경책을 읽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지시와 행위에 비성경적인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변화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백석학원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대학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전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백석공동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백석학원이 성경책을 배

부하고, 학부별 담임목사를 두고 학생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전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에만 있지 않다. 기독교대학다운 선한 행정이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보여지고 체험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의 선한 행실을 통해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석학원을 기독교대학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러한 시기에 참다운 기독교대학으로 선한 행정을 하도록 애쓰며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저 대학의 생존을 두려워하며 생존을 위해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기독교대학으로 세워주신 이유를 깨닫고 기독교대학다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대학이 일반 대학에서 하는 방식으로 또는 더 악한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학다운 경영과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구성원인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선한 행실을 체험해야 한다. 특히 믿지 않는 학생들이 기독교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랑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한다. 기독교대학이라 하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직원들조차 기독교대학이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슨 기독교대학을 할 수 있겠는가? 백석공동체가 스스로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석공동체의 삶을 통해 내부의 구성원들이 기독교대학임을 느끼고 재학생들과 학부모, 세상의 사람들에게 역시 기독교대학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기독교대학이 전하는 예수님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백석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2) 신학회복운동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장종현, 2018: 39).”

백석학원에서 신학회복운동은 백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석공동체의 구성원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은 신학교육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학문을 앞세운 신학교육이 문제입니다.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장종현, 2018: 48).” 결국 백석학원에서 신학회복운동은 백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강의하고, 연구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사는 자답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격적이며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백석학원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을 통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17:3).”

장종현 박사가 2003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2008년에 ‘개혁주의생명신학’ 선포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체계화하고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책자들이 발간하면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길을 간다면 또 하나의 신학을 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신학자들에 의해 신학을 체계화하는 것과 함께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는 백석학원에서 공동체의 신앙이 개혁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백석공동체의 경영과 행정에 있어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의 변화 없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확산하고 전하려 한다면 또 하나의 죽은 신학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신학은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백석학원에서의 신학회복운동은 장종현 박사가 주장하듯 백석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한국교회가 오래 전부터 해온 말이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신학이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복 받고나서는 무늬만 신앙인으로 변질되었다. 권력과 부라는 복이 도리어 독이 되어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 예수는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게 된 것이다. 세속적 복은 받았으나 교회는 쇠퇴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회복운동은 영생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백석공동체가 영생을 알고 영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백석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6:12)

백석학원의 신학회복운동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앎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작게는 바쁜 일상 중에 말씀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하는 부서라면 학생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부서라면 건물과 땅에 투자하기보다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일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한 행정을 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회개용서운동

“회개용서운동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이다(장종현, 2018, 70).” 백석학원의 회개용서운동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 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장종현, 2018: 73).”

백석공동체에도 ‘죄악 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부딪힘이 있다. 백석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 설립정신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독교대학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기독교대학을 곤고히 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죄악 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다. 그렇다고 교회가 해야 할 예배, 전도의 사역을 대충하거나 나중에 하고, 성도들에게 경제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예배는 먹고 살만하면 드리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다. 기독교대학인 백석학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대학의 생존이 어렵다고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며 각종 평가 지표를 올리는 일에 매진하면서 기독교대학이 가야할 길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기독교대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개용서운동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이다(장종현, 2018: 70). 이는 백석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 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 됨이다. 백석학원이 가야할 회개용서운동의 길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백석공동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이다. 회개와 용서를 강조하지만 삶의 돌이킴이 없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팽과리 소리가 될 뿐이다.

백석학원의 회개용서운동은 백석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것을 회개함과 함께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백석공동체에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간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죄악 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의 돌이킴으로 행정과 정책에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므로 백석학원의 회개용서운동은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 안에 회개의 열매가 보일 때, 용서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4) 영적생명운동

“영적생명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자는 운동(장종현, 2018, 81)”이다.

“사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기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을 생각하여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생명력을 발하는 살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장종현, 2018, 92).”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생명운동에 백석학원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백석학원은 다른 어느 대학보다 많은 인력과 재정을 교목실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복음화의 사역을

교목실에서만 담당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학원복음화의 사역은 교목실이 중심되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백석학원의 영적생명운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학원복음화를 건학이념으로 삼은 백석학원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학원복음화를 위해 정확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매년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들의 종교현황을 파악하고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학원복음화는 교목실만이 아니라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신앙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둘째, 지도교수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상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도교수들과 교목실의 협력하여 세례자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을 통해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들은 확실한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학생과 나누어야 한다(김기숙, 2018, 31).” 백석학원에 전공교수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수업에 보다 많은 전공교수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교양수업이 전공수업으로 확대되도록 연구과제 공모 등을 시행하여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백석학원의 영적생명운동은 기독교지성의 개발을 통해 영적생명을 키워나가야 한다. 각 전공영역에서 기독교지성의 개발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5) 하나님나라운동

“하나님나라운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장종현, 2018, 101).” 백석학원은 하나님나라운동을 위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신앙과 학문 연구 세미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앙과 행정 세미나,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등을 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전공학문 영역과 백석학원의 행정 분야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백석학원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은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장종현, 2018, 102-103).”

백석학원에서 첫 번째 하나님나라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말로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석공동체의 업무와 행정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우리는 흔히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고 이를 해결하여 준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를 귀하게 대접한다. 기독교대학에서는 낮은 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보직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였듯 섬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둘째, 백석학원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을 위해서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을 키워야 한다.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담대한 신앙의 인물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나라의 백성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적절히 타협하고 누릴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하지만 백석학원의 현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왜곡된 백성을 키워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백석학원의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현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문제점들에 대하여 행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며,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장종현, 2018: 104-108).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약2:17)”이다. 백석학원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대학임을 명백히 밝히고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선언은 분명 하나님께 칭찬받을만한 믿음의 고백이다. 하지만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임을 밝히는 믿음을 선언하는 광고에 합당하게 대학의 행정이 기독교대학답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대학이라는 믿음의 선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의 선포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이라는 믿음의 선언에 합당한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백석학원의 하나님나라운동은 학원복음화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한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 사용하는 것은 좋은 미덕이다. 하지만 아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다. 진정한 교회라면 건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백성을 원하신다. 백석학원도 마찬가지다. 땅과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

다. 사람을 키우는 일, 백석학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키우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이 백석학원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이 될 것이다.

6) 나눔운동

“나눔운동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장종현, 2018: 121).” 백석학원은 헌혈운동, 사회봉사센터를 통한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장종현, 2018, 134-137). 이러한 나눔운동은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나눔을 전하는 사람이나 나눔을 받는 사람 모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이다.

기독교대학은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통해 소금과 빛의 과제’를 설정해야 하고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정종훈, 2014, 104). 그런 면에서 백석학원이 진행하고 있는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기독교대학만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운동이라 할 수 있다.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서 다른 기독교대학보다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개교회주의가 언급되고 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공교회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개교회주의는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다. 기독교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대학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백석학원에 뿌리내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우뚝 서게 된다면, 그러한 노하우를 국내외 기독교대학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백석학원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설립정신 아래 굳건한 기독교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기독교대학이 어떻게 교육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이 될 것이다.

7) 기도성령운동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성령운동입니다(장종현, 2018, 141).”

기도성령운동을 통해 백석공동체는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보다 힘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기에 연약한 백석공동체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때가 아닌 이유는 백석학원을 기독교대학으로 이끌어갈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백석공동체의 구성원이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나가는 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를 바라보며 대학들 특히, 기독교대학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백석학원이 과연 기독교대학으로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글을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독교대학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나름의 주장을 펼치려 하였으나,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이유는 각자의 표현 방식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이미 많은 신학자, 목회자, 교수들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국판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하였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바탕 위에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백석학원의 교육현장과 각 부서의 행정, 대학운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정신이 교육과 행정의 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실천적 무신론 증후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백석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이며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을 강조하였지만 각 부서의 행정과 정책 결정에 설립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곡된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다. 따라서 백석공동체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 학원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백석공동체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원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 우리 백석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통해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의 핵심인 “성경이 답이다!”라는 외침을 대학의 행정과 경영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경영자와 보직자뿐 아니라 모든 백석공동체가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백석학원이 게토화된 집단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치는 학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삼고 있는 내부에서 조차 소통하고 공감
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굳건하게 서 있되 다원화된 사회와 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백석학원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몇몇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천되고 백석공동체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백석학원에서 신앙운동은 첫째, 성경책을 배부하는 것과 함께 실제 성경이 읽는 운동
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기독교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적 지시와 행위에
비성경적은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변화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석학원에서 신학회복운동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앎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
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의 가치
관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선한 행정의 운동을 해야 한다.

백석학원에서 회개용서운동은 백석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
르는 삶을 살아간 것을 회개함과 함께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를 위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회개의
결과가 행정과 정책에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너머 실제
적인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석공동체 안에 회개의 열매가
보일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석학원에서 영적생명운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
성원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원복음화를 통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신앙 현황에 대하
여 조사하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상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도교수들과 교목실의 협력하여 세례자가 확산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
하였다. 또한,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을 통해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백석학원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 하
나님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운동, 학원복음화를 위해 재정을 투자하는 운동으로 이어져
야 한다.

백석학원에서 나눔운동은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같이 기독교대학만
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다른 기독교대학에 전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백석학원에서 기도성령운동은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인 백석학원을 중심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실제 기독교대
학의 교육과 행정, 경영에 적용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혁주의생
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대학의 회복을 경험해
야 하는 것이다. 백석학원에서 시작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지식으로 머물

지 말고, 실제 대학의 모든 영역의 활동에 실천적으로 적용되어 백석학원을 넘어 한국교회와 다른 기독교대학에 확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John Piper. 조계광 역. Coronavirus and Christ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2020. 개혁된실천사.
- 권영문과 김승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 탐색. 교육문화연구. 26(5): 743-758, 2020.
- 김기숙. 전환기, 기로에 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와 대처방안. 기독교교육정보. 56:1-36, 2018.
- 김동효. 코로나시대 대학 언택트 무용 수업에 대한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5):37-61, 2020.
- 김상배. 코로나19와 신홍안보의 복합지정학 :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54(4):53-81, 2020.
- 신선애, 김옥분, 박지인, 김은진, 정태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수업의 방향성 탐색: 중간강의 평가 데이터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26(5):195-228, 2020.
- 안지은과 박지현. 코로나19와 온라인 기반 영어매개강의: 경영대학 전공 수업 사례연구. 외국어교육연구. 34(4):81-109, 2020.
- 오수경. 코로나19 상황하의 중국 문화예술계 그 대응과 각성. 연극평론. 97::102-109, 2020.
- 유선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속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 사회적 낙인찍기. 국제사회보장리뷰.15:5-22, 2020.
- 이동주와 김미숙.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 온라인 원격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359-377, 2020.
- 이용상.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3(4):39-57, 2020.
- 장종현. 백석연구소 총서 2: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백석정신아카데미. 천안, 2014.
- 장종현. 백석연구소 총서 4: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백석정신아카데미, 천안, 2018.
- 정종훈. 기독교대학의 현실적 위기와 대책 찾기. 대학과 선교 26: 73-108, 2014.
- 한승우와 김보영. 코로나19 이후 대학 온라인 교육에 관한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문화와 융합. 42 (10): 155-172, 2020.
- 허도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 방안: 기독교인 교수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28: 75-112, 2015.
- 홍태희. 코로나 19 팬데믹 경제위기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전망. 經商論叢 38(3): 79-99, 2020.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코로나 19 이후 기독교대학 : 백석대학교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지원
		논찬자 (소속)	박지연 (백석대학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발발한 지 1년을 지나 여전히 팬데믹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연구자는 코로나로 인한 개신교의 이미지 급락과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한편 기독교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석학원이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함은 물론 더욱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석학원은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역동적 실천을 도모해왔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는 백석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가 ‘하나님 중심’, ‘사랑’, ‘존중’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백석학원 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공동체 내에서 주목할 만한 긍정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운동이 개인의 신앙고백이나 회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공적인 영역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교육, 행정, 경영 측면에서 기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이 각 부서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경험되는 변화의 운동이 되어 백석학원을 넘어 한국교회와 다른 기독교대학에 확산되는 데에 실질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석학원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향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더욱 뜻깊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논찬자로서 본 논문을 읽으며 생각한 두 가지의 제언을 제시하며 논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논문에서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이 교육과 행정의 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실천적 무신론 증후군’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진단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학원 내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 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백석학원에서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기 위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다른 교단 소속 기독교대학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